월간 범어교회보 Vol. 448

늘 푸른 숲

2026. 10

‘에벤에셀’의 120년, ‘여호와 이레’의 **내일을 잇다**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여정’

120년의 은혜, 다시 만난 믿음의 가족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세우는 **‘수선대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공감의 장, **왕의 백성이여 왕의 뜻을 이 땅에**



POMC 범어교회

섬김으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세우시는 예수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 16절"



익어가는 믿음과 삶



이지훈 담임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가 익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기다림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익어가게 하십니다. 잘 익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햇볕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눈물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용하셔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오셨습니다.

깊어져 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잘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하여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잘 익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을 열며

더위가 지나간 자리에서 기분좋은 가을바람이 느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네 인생길도 그러합니다.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탄탄대로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것임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시원한 바람이 더없이 소중한 것은 무더운 여름을 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4절)

이 좋은 계절에 별일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으니, 불평이 쏟아져나옵니다.
불평이 가득하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성애** 집사(교회보팀)



2026 October | Vol. 448

CONTENTS

02 **포토에세이**
03 **목양칼럼**
04 **10월을 열며** _ 김성애 집사
05 **목차**
06 **설립 120주년** | '에벤에셀'의 120년, '여호와 이레'... _ 허윤정 집사
07 **설립 120주년** | 산증인의 찬양, 믿음의 징검다리 _ 이지은E 집사
08 **가을 특밤** | 온유함과 기쁨의 시선으로 _ 이지영C 집사
09 **가을 특밤** |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여정' _ 심정민 사모
10 **가을 특밤** |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_ 교회보팀
11 **홈커밍데이** | 120년의 은혜, 다시 만난 믿음의 가족 _ 신규식 집사
12 **120주년 기념 찬양제** |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_ 김보현 집사
14 **내 영혼의 찬양**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_ 교회보팀
16 **나의 한 구절** | 신인숙 집사
18 **120주년 기념** |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세우는 '수선대후' _ 이현기A 집사
19 **120주년 기념** |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사람 _ 김선주 성도
20 **청년부**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_ 박라윤 청년
21 **청년부** |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_ 이세빈 청년
22 **공감의 장** | 왕의 백성이여 왕의 뜻을 이 땅에 _ 한정민 집사
24 **인터뷰** | 일상 속 비추는 작은 빛처럼... _ 서은주 전도사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28 **행사단신** | 9월의 범어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8호 | **발행일** 2026년 10월 4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종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에벤에셀’의 120년, ‘여호와 이레’의 내일을 잇다

수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이 ‘터’ 위에 범어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소가 옮겨지며 건물이 올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범어교회의 ‘터’는 이 땅도, 건물도, 사람도 아닌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12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린 120주년 기념 예배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감사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온전한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이제는 또 하나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다음 세대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묵묵히 증언하는 아름다운 계승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허윤정** 집사(교회보팀)

산증인의 찬양, 믿음의 징검다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가끔 예배만 드렸습니다. 늘 손님처럼 오가던 5월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언제까지 손님으로 올 거니? 이제는 내 집으로 들어오렴"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이미 사랑방을 예비해 두셨고, 따스하게 품어준 사랑방 식구들은 어느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범어의 가족이 되어 맞이한 120주년 기념 주일, 본당에 들어선 순간 하얀 상의를 곱게 갖춰 입은 많은 어르신이 1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헌신의 자리에 모이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어르신들을 바라보니 화사한 스카프로 한껏 멋을 낸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잔치에 모인 어린아이들처럼 정겹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양을 들으며 어르신들의 살아온 세월 속에 담긴 신앙의 간증을 듣는 듯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주께서 지켜 주셨다'라는 가사가 수많은 세월 동안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간주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지휘자의 손짓에 온 성도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시간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서 있어. 내가 너를 굳게 잡아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한 단어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몸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후손들 앞에서 고백하며 선대의 믿음을 이어주기를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 기도를 올리는 **'믿음의 산증인'**이란 단어였습니다. 이분들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윗세대를 통한 '에벤에셀'과 다음 세대의 '여호와 이레'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범어교회를 세우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 **이지은E** 집사(하사모)

온유함과 기쁨의 시선으로

육아를 핑계로 영아부 예배와 아이에게 맞춘 가정예배만 겨우 드리며 제 영혼이 많이 메말라 있음을 느끼고 있던 요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과 함께 특밤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고, 그 시간은 갈급했던 제 영혼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5일간 이어진 특밤 가운데 첫째 날과 둘째 날 김병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온유함과 기쁨에 대한 말씀은 아내와 엄마로 살아가는 지금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을 다시 채워 주셨습니다.







첫째 날 말씀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라는 설교였습니다. 온유함은 단지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를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바울처럼 기쁨으로"라는 설교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지만,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며 삶의 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사람, 물질과 눈앞의 사건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특밤을 통해 어느새 줄어들었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분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이지영C** 집사(베드로청년회)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여정'

범어교회에 온 후, 가장 기대되는 시간 중 하나는 '특밤'이다. 특새라는 단어보다 더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일까, 특밤 기간에는 교회에 머무는 내내 마음이 너무 벅차다. 이번엔 어떤 분이 오실까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손경민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제로 처음 뵙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표정은 정말 밝아 보였고 기쁨이 있었다.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부가 함께 달란트로 쓰임받는 모습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함께 오신 이기명 전도사님의 색소폰 연주도 힘이 있어 참 좋았고 깊은 울림을 주었다.

청년 시절에 마커스 워십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사모의 직분으로 살며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던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다. 그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여정'이다. 우리 가정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참음과 사랑을 원하셨다. 크고 작은 선택들과 고난 앞에서 기도로 몸부림칠 때 단번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항상 우회하며 인도해 가셨다. 우회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불평도 정말 많이 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싶어서 자책하며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내 멋대로 굴 때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진영 밖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므로 재정비시키시는 시간일지의 질문을 던지며 지나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고 지칠 때쯤 내 옆에 위로자를 보내주셨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으켜 주셨다. '여정'은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눈물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준 찬양이다.

지금 범어교회에서의 시간도 긴 여정 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번 여정 가운데 내게 만나게 하신 위로자는 우리 사모님들이다. 언젠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흩으실 것을 알기에 지금의 이 시간이 더욱 귀하다. '여정'의 가사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옆의 위로자들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되길 소망한다.

• **심정민** 사모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을의 특별한 밤들이 쌓이고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이 더 재촉하듯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특밤의 마지막 강사이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차분하지만, 강단 있게 선교사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기적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설교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눈을 따라갔습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닌 선교사님이 직접 체험하여 목도한 하나님을 성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설교의 예화와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바래진 듯이 잊히더라도 긴 시간을 건너 기어이 이루십니다.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확증하신다'**라는 말씀에서 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기도, 그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포장되지만 그럴듯한 결과에 매몰되어 내가 올리고, 내가 조적하여, 내가 쌓는 탑에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념비가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기적의 사전적 정의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성도에게도 기적이란 죽을병이 낫고 상황과 환경이 비약적으로 바뀌고 결과가 360도 달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사랑하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며,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매일의 기적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의 아침과 호흡과 공기와 햇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이 됩니다. 이처럼 **감사함이 없이는 결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을 지혜롭게 풀어주는 설교였습니다.

밤길을 나서며, 그렇게 마음에 쌓아 올려 견고한 나의 탑의 주변을 여러 번 밟고서 돌아 나옵니다. 이 길 위에서 여리고 성을 돌던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예배함과 같이, 나의 탑을 무너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 약속하심의 결과와 시기가 어찌하든지 감사함으로 그 땅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끝이 응답하심이 아니라 감사임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 교회보팀

120년의 은혜, 다시 만난 믿음의 가족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지난 9월 6일 주일,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 아래 예루살렘 채플과 가나홀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7월부터 120주년 기념 준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결석자와 옛 성도들을 초청하는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교구별 연락과 카카오톡 초청, 주보와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식을 알렸으며, 찬양제와 환영 행사, 기념품과 명찰, 만찬 준비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이 더해졌습니다.

오후 4시 예루살렘채플에서 '찬양제'로 문을 연 뒤 가나홀로 자리를 옮겨 "홈커밍데이" 환영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지훈 담임목사님의 환영사와 장영일 원로목사님의 축사에 이어 '에벤에셀' 4행시 짓기, 추억 사진 퀴즈와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120주년의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범어교회 초기 신앙공동체의 뿌리가 된 성도님들의 후손을 소개하는 '인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박순이 성도님의 5대손 이상명님과 서울에서 내려오신 배양이 성도님의 5대손 유미원님, 조달숙 성도님의 4대손이자 본 교회 은퇴장로인 정철원 장로님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후 만찬과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성도들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지난 추억과 믿음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는 지난 120년 동안 범어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대를 이어온 믿음의 유산을 함께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하나 되어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신규식** 집사(120주년 기념 준비소위원회 기획간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12:5)

2026년 9월 6일 오후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찬양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찬양제의 기획 의도인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많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양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다양한 연주자들로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찬양제 당일, 케이크 컷팅식이 끝나고 시작된 첫 순서는 교회 각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범어교회 120주년 페스티벌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였다. 모두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흥겨운 재즈 형식의 브라스밴드 곡으로 편곡한 생일 축하 팡파르였다. 두 번째 연주는 플루트 연주자인 청년 1부 이채영 양의 〈십자가 그 사랑〉 독주였다. 우아한 찬양 독주는 숨죽여 귀 기울이게 할 만큼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공연은 다음 세대 고등부 찬양대 '마하나임'과 중등부 찬양대 '하이프레이즈'가 연합한 '마하나임 & 하이프레이즈'의 〈매일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었다. 두 찬양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예쁘고 기특한 마음이 가득 느껴졌다.

범어교회 각 찬양대의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솔리스트 앙상블'의 공연이 이어졌다. 전국을 무대로 공연하던 성악가들이 신미경 권사의 지휘 아래 한목소리로 연주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두 곡의 찬양은 은혜와 여운을 남겼다. 다음 공연인 백나현 양과 백낙원



은퇴장로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바이올린 & 피아노 이중주'였다. 부녀가 듀엣으로 연주하는 모습만으로도 감동적이었고, 그만큼 울림이 있는 순서였다.

이어서 범어교회의 120년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부 주전하기 중창단'의 순서는 큰 감동의 시간이었다. 현재 단원들뿐만 아니라 창단 멤버들을 포함한 많은 역대 주전하기를 거쳐 간 O.B 단원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60여 명의 단원들이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찬양하며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을 축하하였다.

찬양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범어교회 120주년 페스티벌 콰이어 & 오케스트라'는 교회의 지휘자들 가운데 가장 어른이신 최영은 은퇴장로의 지휘와 박주현, 민주애, 김연경 두 찬양대 반주자와 함께 범어교회 4개 찬양대 120여 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었다. 120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주, 에벤에셀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세 곡의 연주가 이어졌다. 이후 앵콜곡으로 모든 관객들과 함께 부른 헨델의 〈메시아〉는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찬양제'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120년을 기념하는 귀한 찬양제를 위해 연습과 준비로 애쓰고,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연주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4개 찬양대의 연합찬양이라는 쉽지 않은 일에 설립 12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말 연습까지 마다치 않고 애써주신 합창단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스텝, 그리고 찬양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김보현** 집사(120주년 기념 준비소위원회 찬양분과장)













걱정의 자리에 피어난 믿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삶에는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애써 눌러두었던 걱정이 떠오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얄팍해진 통장 잔고, 자녀의 앞날, 복잡한 관계, 막막한 직장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 우리는 마치 내가 더 애쓰면 될 것처럼 문제를 꽉 붙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 염려를 내게 맡기라."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안한 상태에서 지어진 찬양이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눈앞에 걱정할 일이 태산 같아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굳센 믿음의 선포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시빌라 마틴 작사(1866~1948) / 월터 스틸만 마틴 작곡(1862~1935)

마틴 부부가 함께 만든 이 찬송가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1904년, 월터 마틴 목사와 아내 시빌라는 아홉 살 된 아들과 함께 미국 뉴욕주 레스터의 성경학교를 방문했다. 찬송가를 편찬하는 중요한 사역 때문이었지만, 당시 시빌라의 건강은 몹시 좋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병세가 악화되어 시빌라는 앓아눕고 말았고, 월터 목사는 곁에서 아내를 간호하느라 맡은 일조차 진행하기 힘든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그때 월터 목사에게 인근 교회의 설교 요청이 들어왔다. 아내가 위중했기에 거절하려던 순간, 어린 아들이 말했다.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 주실 거예요."** 어린 아들의 순수한 고백에 마틴 부부는 쥐고 있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고, 월터 목사는 설교하러 길을 나섰다.

남편이 떠난 뒤 시빌라는 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는 가운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라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시빌라는 그 은혜 가운데 한 편의 시를 적어 내려갔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곧바로 풍금 앞에 앉아 곡을 붙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동역자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렀을 때 시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되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거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찬송이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 그날의 은혜가 한 가정의

기도를 넘어, 오랜 세월 수많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송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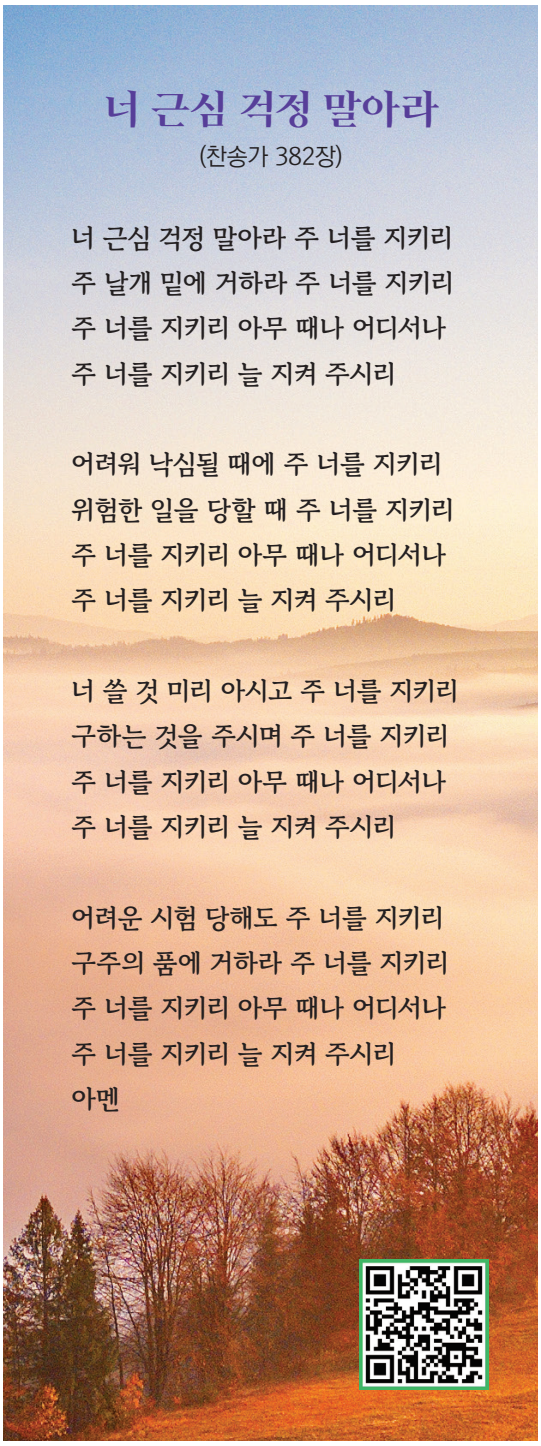
"하나님께 맡길 때, 근심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일 크고 작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당장 닥친 문제도 버거운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일까지 당겨서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 다시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돌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몫은 성실하게 감당하되, 어찌할 수 없는 염려는 크신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걱정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걱정 가운데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 교회보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그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걸고 모험하신다.
그 위험한 길을 가신다.

난 널 위해 상처받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고통받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비난받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배신당할 수 있어.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것이 십자가다.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규장/임형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내 유익을 위해
"잠시만 하나님" 하며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욕심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확증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임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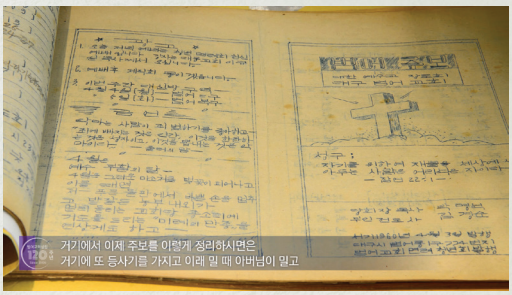
• **신인숙** 집사(유치부 교사)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세우는 '수선대후'

'수선대후(守先待後)'는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1906년 설립된 범어교회는 올해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20년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 온 수많은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이어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수선대후 프로젝트'는 범어교회의 역사를 단순히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헌신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장영일 원로목사님과 이지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 권사, 집사, 교역자, 선교사와 성도들의 생생한 증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린 섬김,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2025년 대학부에서 시작된 여러 인터뷰는 2026년 4월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방송과 영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추가 인터뷰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2026년 9월 4일 '수선대후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오늘의 범어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과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선대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수선대후'의 정신입니다.

• **이현기A** 집사(120주년 준비소위원회 실행위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사람







어릴 적 교회에서 저를 소개할 때면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믿음의 3대를 이어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어느덧 제가 자라 부모의 나이가 되고 보니 때로는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잘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범어교회 1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수선대후' 예배를 드리며 120년 역사 안에 오롯이 녹아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명절 아침마다 3대가 시골 마당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30명 가까이 되는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 이름 한명 한명 불러가며 기도하시던 할아버지의 음성이 귓가를 맴돌고, 집안의 대소사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로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믿음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삶의 표지판이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안의 대소사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각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세대를 이어 누리는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사하고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후손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묵묵히 기도와 순종으로 헌신하셨던 부모님처럼 저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 된 한 사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여전히 다음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 **김선주** 성도(예사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16)

이번 여름방학에 '청년부 여름 국내 아웃리치'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첫 선교였기에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니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도 정기 예배 기도 시간에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손을 모으지도 눈을 감지도 못했고, 찬양을 소리 내어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고 숨겼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인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전도축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도축제를 홍보하며 교회에 대한 거리감으로 아이들이 선뜻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리 청년들은 "몇 명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3명의 아이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다음 '제이홈처치'에서는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길에서 찬양을 드리고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께 음료와 간식을 나누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며 받아주시고 응원의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제 선택으로 선교지에 나아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저를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앞으로도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박라윤** 청년(청년1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년부 여름 현장 선교지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첫 선교지였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대와 걱정을 안고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고 봉사 기간의 날씨 예보도 계속 흐림이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이어진다면 현장 선교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날씨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제가 제주도에서 보았던 바다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예상 너머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드렸던 기도 중 하나는 '저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어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선교에 참여한 것 역시 단순히 제 의지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드린 제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던 내용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방식과는 달라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도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저의 기준에서는 노력한 것, 나눠준 전도지에 비해 새로운 친구들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설교를 통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선교는 그 수와 관계없이, 훗날 누군가가 우리가 전했던 주님을 기억하고 믿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는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선교의 의미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이세빈** 청년(청년1부)

왕의 백성이여 왕의 뜻을 이 땅에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초청 설교로 박윤만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1997년, 대학부 24대 신입생이었던 저에게 대학부 지도목사님이셨던 박윤만 목사님의 말씀은 제 삶의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절의 추억과 은혜가 되살아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신비, 기도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의 뿌리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드린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차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학부 시절 품었던 도전과 은혜,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 예배당 지하1층 대학부실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PBS(Personal Bible Study)를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었던 시간, 목요일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던 목요기도회의 시간도 생각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



게 살아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세워가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교회 마당에서 서로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소리 높여 찬양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찬양했던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Already)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Not Yet)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했던 20대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민아, 너의 갈등 속에 성장하고 있는 거룩한 씨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삶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거름으로 사용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듯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20대의 뜨거웠던 열정은 세월과 함께 모습이 조금 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만큼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작은 삶을 통해 왕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함께 손을 잡고 부르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어져 온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내가 이어가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한정민** 집사(바울청년회)

일상 속 비추는 작은 빛처럼,
나를 빚어가신 신실한 하나님

가난한 시골 교회의 마당에서 뛰놀던 목회자의 딸로 자라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밀하게 빚어가셨습니다. 내 뜻과 달랐던 진로, 순종으로 들어섰던 유치부 사역의 현장, 그리고 예기치 못한 커다란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참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신 **서은주 전도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Q. 먼저 전도사님의 유년 시절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저는 시골 교회를 묵묵히 섬기시던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1남 3녀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엔 경북 의성 안계의 외갓집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시골 교회 마당에서 교우들의 자녀들과 어울려 뛰놀며 자랐습니다. 학교까지 4km를 걸어 다녀야 하는 시골이었지만 논두렁 사이를 오가며 뛰놀던 그 시절의 따뜻한 정서는 지금도 제 영혼의 소중한 쉼터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산 평산교회에서 40여 년간 한결같이 목회하시고 작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어머니는 지금도 경산에 머물고 계십니다.





Q. 자라면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늘 '착하고 모범적인 목회자의 딸'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늘 검소하고 고단해 보이는 아버지의 삶을 보며 '목회자의 길은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곤 했어요. 원래는 국문학이나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대학 입시에서 문이 뜻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서서 고민하던 제게 아버지가 신학을 권하셨고, 결국 계명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은 다 내려놓아야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앞에 세우신 섭리의 시작이었습니다.

Q.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순간은 언제였나요?

A. 스무 살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학과 찬양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며 '제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직후 아버지의 권유로 필리핀 롬블론 섬으로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지 바닥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세요." 20대의 문턱에서 드렸던 이 항복의 고백은 이후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는 든든한 약속의 닻이 되었습니다.





Q. 하나님을 만난 후 삶의 롤모델이나 영향을 준 분이 계신지요?

A. 무엇보다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시골 목회지에서 수많은 현실적 어려움과 가난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성도들을 품으셨던 참된 목자였습니다. 어릴 적엔 이해하지 못했던 "이 길은 겉보기와 달리 참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은 깊이 와닿습니다. 또한 신앙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네 신을 벗으라』 같은 믿음의 책들을 통해 주저앉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는 담대한 용기를 배웠습니다.

Q. 사역자로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결혼 후 가정을 돌보며 유치부 교사와 방과 후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당시 섬기던 교회의 윤희주 목사님께서 "유치부 간사로 사역해 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주신 평안과 남편의 동의를 얻어 순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기 전에 신학을 더 공부해 전도사로 교회를 든든히 섬겨달라"는 당부를 받아 신대원에 진학했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정에서 육아로 지쳐가던 제 영혼이, 오히려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칠 때 새로운 힘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보며 사역의 자리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임을 확신했습니다.

Q. 범어교회로 오시게 된 과정과 사역의 큰 전환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섬기던 교회의 리더십 교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가정을 지키며 가장 사모하던 유치부 영혼들을 깊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범어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사역을 5년 동안 행복하게 감당했고, 현재는 '새가족부'로 옮겨 4년째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의 가장 큰 영적 전환점은 2018년,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에 떠나보냈을 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충격의 파도를 지나며, 제 사역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두려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사별 후 비로소 저와 같은 깊은 상실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별 가정,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이 제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가장 캄캄했던 고난의 터널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실하게 보듬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Q. 사역자로서 평생 붙잡고 계신 말씀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두 구절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잠들기 전 찬양으로 부르며 마음에 평안을 얻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는 평생을 묵묵히 사셨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에 새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화려하게 드러나는 큰 사역보다, 주어진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성도이자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Q. 최근 경험한 특별한 은혜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요?

A. 혼자 세 아이를 양육하며 지칠 때도 많지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일상의 아주 사소한 형편까지 주님께 기도로 아뢰곤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범어의 모든 교우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우리에게 세밀하게 손 내미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 정리 **교회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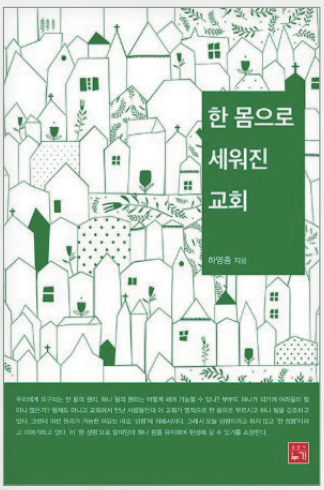
기도 제목

- 2남 1녀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동행하도록
- 맡겨진 새가족부 사역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따뜻하게 품어내도록
- 분주한 사역과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의 빛을 묵묵히 비추도록
-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한 몸으로 세워진 교회 (하영종, 도서출판누가, 2025)



우리는 모두 다르다.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 식성, 버릇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몸은 두 인격체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의 팔로, 다리로 부르셨다는 뜻이다. 탁월하고 뛰어난 팔만으로, 빠르고 튼튼한 다리만으로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리신 한 몸은 오직 '한 성령'으로만 온전하게 지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몸의 원리, 하나 됨의 원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는가? 부부도 하나가 되기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형제도 아니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을 유지하며 완성해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본문 中



I am a church member (톰 레이너, 아가페북스, 2015)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회비를 내는 만큼 서비스를 받는 어떤 팀의 팀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봉사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성도가 되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교회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희생하기 위해서다. 항상 우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면 십자가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中

9월의 범어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4일(금) 오후 8시 예루살렘채플에서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다큐 '수선대후' 상영 및 온세대 특별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7일(월)~11일(금) 2026 가을 특별 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7일(월)~8일(화)에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9일(수)에는 손경민 목사, 10일(목)~11일(금)에는 이용규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일(주일) 오후예배는 사랑방 목자 헌신예배로 평강교회 이요셉 목사를 강사로 하반기 목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일(주일)에는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예배는 120주년 기념 찬양제가 있었고, 찬양제 이후 1층 가나홀에서 홈커밍데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1층 마당에선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추억사진전도 열렸습니다.



13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교회 설립 120주년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새벽이슬 청년부가 18일(금)~20일(주일)에 '은혜를 일상으로 잇다'란 주제로 청년 위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금) 금요기도회 시간 이정규 목사를 주 강사로 하나님과 나에 대해 묵상해 보았고, 19일(토)에는 삶과 믿음을 주제로 전은주 목사의 찬양콘서트와 이정규 목사&임형규 목사와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20일(주일)에는 우미쉘 목사의 찬양 간증집회를 통해 은혜와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는 대구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암송쓰기대회 및 율동 경연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예수님의 붉은 띠로 묶여진 성도의 섬김의 두 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을의 특별한 밤에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소서.



범어범어(泛魚凡語)

"오늘 내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방 나눔 중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장소입니다. 성도가 성전이며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성도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설교 중

"사람의 가치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로 결정된다."

고등부 설교중

"참된 기쁨은 내가 정한 답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가을특밤 중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의 교만이 아닌 예수님이 깃드시길 원합니다."

가을특밤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황유현 (황세홍, 류화선)



최아인 (최규빈, 김현옥)

■ 출산

- 최유림 집사(김우섭 집사) 득녀 : 9월 6일(주일)
- 박주희B 집사(최대영 집사) 득녀 : 9월 8일(화)
- 김지혜E 집사(신정욱 집사) 득남 : 9월 8일(화)
- 정아름 성도(정영찬 성도) 득녀 : 9월 15일(화)

■ 결혼

- 이영선A 집사(손지연 집사)의 장녀 이나윤양 : 9월 12일(토) 노비아갈라웨딩 동촌점 포레아홀
- 문종해 집사(임은경 집사)의 장남 문갑중군 : 9월 12일(토) 대전 산성교회 대예배실
- 이상철A 집사(조선미 권사)의 장남 이도형군과 최지현양 : 9월 12일(토) 스타디움웨딩홀
- 권혁준 안수집사(김경숙A 집사)의 장남 권택정군 : 9월 12일(토)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블레스홀
- 최찬식 안수집사(김수정A 집사)의 장남 최재영군 : 9월 19일(토)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피오니홀
- 홍병희 집사(박순영 집사)의 차녀 홍혜민양 : 9월 19일(토) M스타하우스 화이트스타홀

■ 목사 위임

- 이성희 목사(이상수A 은퇴안수집사의 장남) : 9월 6일(주일) 포항 소망교회 담임목사

10월 교회 행사 안내

- 2일(금) : 120주년 기념 출신 목회자 초청설교 한승호 목사(가야제일교회)
- 4일(주일) : 정기제직회(오후)
- 6일(화)~7일(수) : 수성노회
- 11일(주일) : 성례주일(학습/입교/세례)
- 17일(토) : 정책당회
- 18일(주일) : 성찬식, 의료선교위 주관예배(오후)
- 25일(주일) : 종교개혁주일, 온세대 연합예배, 정기당회
- 30일(금) : 120주년 기념 출신 목회자 초청설교 최준희 목사(온양갈보리교회)

10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11일(주일) : 고등부 전도 운동회
- 18일(주일) : 영아부 사랑이 자라는 나눔 장터
- 18일(주일) : 유치부 Holywin Day
- 18일(주일) : 소년부 가을 운동회
- 25일(주일) : 온세대 연합예배
- 25일(주일) : 영어예배부 수성못 버스킹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박용수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9.16-11.25
매주 수요일

26-2
어머니기도회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눅13:18-19)

오전 10시
갈릴리채플

제자훈련위원회

FOMC
워어교회